

[요약]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 최명관 옮김, «인간이란 무엇인가», 창, 2008.

* 인간의 자기 인식 위기

자기 인식은 철학적 탐구의 최고 목표라고 인정된다. 회의적 사상가들은 사물의 일반원리를 불신했으나 자기 인식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회의론자는 자기 인식이 자아 실현의 선결 요건이라고 선언한다. 심리학 지식의 진보는 이러한 데카르트적 내성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성은 인간 생활 가운데 경험이 얻을 수 있는 적은 부분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각을 중시하여, 인식의 세계를 생명으로서 설명하고자 했다. 인간은 물질적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외향적 견해를 수반하고 이것을 보충하는 삶에 대한 내향적 견해를 본다. 우주에 대한 신화적 설명들 속에는 언제나 우주론과 나란히 인간론이 있었다.

자기 인식은 인간의 근본적 의무다. 가치의 변화는 철학적 사유의 일반적 진화에도 들어맞는다. 밀레토스 학파의 자연 철학을 넘어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리철학, 그리고 엘레아 학파의 논리 철학 인식과 더불어, 우주론적 사상에서 인간론적 사상으로 향하는 경계에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이 나왔다. 그는 인간의 비밀을 연구하지 않고는 자연의 비밀을 밝힐 수 없다 확신했다. 소크라테스에 이르러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뚜렷해졌다. 그는 선, 정의, 절제, 용기 등 본질을 정의하고자 하지만 절대 인간을 정의하려 하지는 않는다. 소크라테스의 반어법, 즉 소극적 답변이 인간에 대한 적극적 통찰을 준다.

우리는 물리적 사물 탐구 방법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찾을 수 없다. 인간은 오직 의식으로써만 기술되고 정의될 수 있다.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과 실제 대면해야 한다. 지적 독백으로 여겨진 철학은 변증법적 사고, 즉 대화로 변모했다. 진리는 본래 변증법적 사고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묻고 답하는 주체들이 협동하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는 사회적 행동의 산물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간접적 답을 얻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설 새 없이 자기 자신을 찾는 피조물'이라는 점이다.

소크라테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 인간 존재로부터 모든 외적, 우연적 특성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확신을 공유했다. 인간 본질은 바깥 환경에 의거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에 의존한다. 자기 추구 요구는 스토아 철학에서도 인간의 특권이요 근본 의무이다. 우리가 질서를 파악하는 건 감각 세계에서가 아니라 판단력에 의해서이다. 스토아 학파의 인간관이 지닌 장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도덕적 독립 감정 둘 다 인간에게 준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이 우주와 더불어 완전한 균형 속에 있음을 발견한다. 스토아 사상에는 그리스도교의 이상과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스토아 학파가 강조한 인간의 절대적 독립이 그리스도교 이론에서는 인간의 근본적 부덕이기 때문이다. 이 대립은 근대가 시작할 무렵에도 여전히 있었다. 이 문제를 뚜렷히 부각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다. 이성은 절대로 단독으로는 자체 능력을 가지고 본래로 돌아갈 수 없으며 설사 그렇다

면 그것은 신적 은혜의 힘에 의해서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이해되고 중세 모든 사상 속에 이해된 인간학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근본 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근대 초에 이러한 인간학에 활력을 준 사상가 빠스칼이 나타났다. 그에게는 근대 문학과 근대 철학의 모든 장점이 결합돼 있다. 그는 <기하학적 정신>과 <예민한 정신>을 근본적으로 구별했다. 기하학적 정신은 훌륭한 추론 방법이지만 모든 대상이 이렇게 다루어질 순 없다. 섬세함과 무한한 다양성으로 인해 논리적 분석을 허용치 않는 사물들이 있다. 모순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진정한 요소다. 인간에게는 <본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인간은 존재와 비존재의 이상한 혼합물이다. 인간성의 비밀로 나아가는 길은 종교뿐이다. 종교는 인간의 신비를 밝히지 않는다. 도리어 이 신비를 심화한다. 우리가 종교로부터 받는 유일한 답은 스스로 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종교는 부조리의 논리가 된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근대의 새로운 인간학을 위한 건전하고 과학적인 기초다. 세계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섭리가 있다는 기존의 근본 전제는 새로운 우주관에 의해 의문시된다. 자신이 사는 생활 공간을 표준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편협한 사고는 포기돼야 했다.

브루노의 사상에서 무한은 단순히 부정이나 한정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이성에 대한 커다란 자극이 된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는 이성을 인간과 우주의 연결자로 삼았다. 계몽주의의 대표자 디드로는 이러한 수학적 이성(계몽적 지식의 기반)의 절대성을 의심한다. 일반적 원리들의 가정보다 사실들의 관찰에 기초를 두는 과학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다. <종의 기원>이 출판된 후 생물학이 수학보다 우위에 서고, 질료로 유기적 자연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쇠퇴) 자연 도태가 무상의 힘이라 간주한 진화론은 생명들 간의 한계를 제거했다. 이빨리트 텐느는 이를 문화 영역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인간의 '충동'은 해명되기 어려웠는데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등은 이를 자신들이 제시한 틀에 맞추려 노력했다. 인간에 대한 현대 이론은 완전한 무정부 상태로 돌입했다. 사실들이 풍부하다 하여 사상도 풍부한 건 아니다. 개념을 통일하기 위해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인간성의 실마리

윅스킬은 활력론의 대변자로서 생명의 자율성 원리를 옹호했다. 각 생물은 단자적 존재로 자신만의 세계를 갖는다. 심리학적 해석 대신 객관적이고 행동주의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 생명의 열쇠는 해부학이다. 생명체는 일정한 메르크네츠(수용 계통)와 비르크네츠(운동 계통)를 소유하며 이는 '동물의 기능고리'(기본 범주)다. 이를 인간세계에 적용하려면 제3의 질적 연결고리인 '상징 계통'을 고려해야 한다. 생물의 반동(직접 응답)과 인간의 반응(응답 지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인간은 한갓 물리적 우주가 아닌 상징적 우주에 산다. 언어, 신화, 예술, 종교에 둘러싸여 이 매개물이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다. 실천 영역에서도 인간은 사실 세계에만 살지도, 욕구 세계에만 살지도 않는다.

인간에 대한 고전적 정의인 <이성적 동물>에서 언어는 이성과 동일시돼왔다. 그것은 '부분으로 전체를 보는 것'인 바, 개념적 언어와 더불어 정동적 언어가 있으며, 논리적 언어와 더불어 시적 상상의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칸트가 체계를 세운 <순수 이성 한계 안의> 종교도 합리적 추상일 뿐이다.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 정의한 사상가들은 인간 본성을 경험으로 설명하

고자 하지 않았다. 인간의 풍부함을 이해하려면 <상징적 동물>로 정의해야 한다. 그러면 인간에게 열린 새로운 길을 이해할 수 있다.

* 동물의 반응에서 인간의 반응으로

상징은 인간 고유의 특징인가? 상징성과 사실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대개 형이상학적 논란으로 변질되었다. 파블로프, 울프 실험은 동물에게도 상징적 과정이 일어난다는 점을 밝혔다. 여기스는 동물이 '인간의 상징 과정의 선행자인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조르주 레베스는 '동물 언어 문제'가 동물심리학의 기초 위에서는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경험적 사실의 올바른 논리적 출발점인 '말의 정의'가 필요하다. 최초의, 가장 근본적인 말의 지층은 정동의 언어다. 이는 침팬지의 의사 표현에도 드러나지만 객관적 기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제적 언어'와 '정동적 언어'가 인간 세계와 동물 세계의 경계표가 될 것이다. 레베스는 "말이란 인간학적 개념으로 동물 심리 연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호와 상징을 구별하자. 동물 행동 속에도 제법 복잡한 신호 체계가 있다. 특정 신호에 따라 특정 행동이 유발된다. 그러나 상징은 단순히 신호로 환원되기 어렵다. 신호는 실체를 지닌 조작자(operators)인 반면 상징은 단지 기능적 가치를 지닌 지시자(designators)다. 신호는 물리적 존재 세계의 일부인 반면, 상징은 인간의 의미 세계의 일부다.

동물 지성에 관한 문제는 오랜 수수께끼다. 손다이크, "동물은 그것에 관해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생각할 뿐이다." (메타적 사고는 인간의 속성) 동물은 실제적인 상상력과 지성을 갖는 반면, 오직 인간만이 새로운 형태인 '상징적인 상상력과 지성'을 발전시킨다. 개인의 지적 발달에서도 실제적 태도에서 상징적 태도로 전이가 일어난다. 이는 헬렌 켈러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설리반이 자신의 교육에서 제2의 큰 전진이라 말한 것은 헬렌 켈러가 '물건마다 이름이 있으며, 수화 문자는 알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열쇠'란 점을 깨달은 시점이다.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징이 인간 사고 전 분야를 감싸는 보편적 적용성의 원리라는 점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로마 브리지만도 헬렌 켈러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순간에 도달했다. 이는 인간 존재가 세계 구성에 있어 감각적 소재의 질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간 문화는 지적, 도덕적 가치들을 재료에 의존하지 않고, 형식과 건축적 구조로 얻는다. 인간은 빈약한 재료를 갖고도 상징 체계를 만들 수 있다.

1)보편적 적용성은 인간의 상징성의 가장 큰 특성이다. 그러나 상징은 보편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극히 가변적이다. 동일한 의미가 여러 언어로 표현된다. 진정한 인간의 상징은 제일성이 아니라 2)변통성을 특징으로 삼는다. 로마 브리지만은 동일 인물을 관계 변화에 따라 달리 불러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상징성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3)관계적 사고가 상징적 사고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감각주의의 여러 학설은 감각 자체가 고립된 인상들의 단순한 묶음이 아니라는 점을 보지 못했다. 형태 심리학이 이를 보완했다. 인간은 추상적 의미에서 고찰하는 능력을 발전시켰는데 기하학이 그 전환점의 예다. 여기서 물리적 대상은 문제되지 않는다. 상징적 체계의 문제를 통찰한 최초의 사상가는 헤르더다. 4)<반성적 사고>로 언어의 성질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는 일반적 인식론이 아니고 직관에 기초를 둔 시적 초상처럼 보이지만 가장 가치있는 논리적, 심리적 요소를 내포한다.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반성을 통해 자신을 "미래로 투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 인간의 공간 및 시간의 세계

공간과 시간은 모든 현실에 관여하는 틀이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조건 없이 사물은 개념을 가질 수 없다. 신화적 사고에서 시공간은 사물을 다스리고 인간과 신의 생명을 결정하는 신비한 힘을 갖는다. 유기체마다 각기 다른 시공간이 있을 것이다. 어떤 순서에 따라 배열된 높고 낮은 층이 있다. 가장 낮은 층이 '유기적 공간과 시간'이다. (하르트만, 존재의 층위 비교) 고등동물에 이르면 '지각적 공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발견된다. 시각, 촉각, 청각 등 여러 감각 요소들이 지각적 공간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협동하는 양식은 감각 지각에 관한 현대 심리학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다.

공간 지각의 기원 문제는 유일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다. 우리는 그 대신 '상징적 공간'을 분석하겠다. 유기적 공간에서 인간은 여러 측면에서 동물보다 못하다. 이 결함에 대해 인간은 '추상적 공간'이라는 다른 재능으로 보충한다. 유물론자와 관념론자 모두 이 발견의 중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데모크리토스는 '공간은 비존재이지만 '참된 실재'를 가진다'고 말했다. 뉴턴은 '추상적 공간'과 '감각 경험의 공간'을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람들은 공간, 시간, 운동을 감각될 수 있는 사물의 관계로만 파악한다. 그러나 학적 진리를 얻으려면 추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추상적 공간의 관심사는 사물들의 진리가 아니라 명제들과 판단의 진리다.

하인츠 베르너, "원시인의 공간 관념은 진보된 문화를 가진 인간의 추상적 공간보다 훨씬 감정적이며 구체적이다." 기하학적 공간에서 우리는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을 갖는다. 인간이 우주의 통일성과 합법칙성에 도달하는 것은 이 공간을 매개로 가능하다. 원시인의 공간 체계는 도식적 모양을 가질 수 없었다. 구체적 이해만 있었지 추상적(일반화) 능력이 없었다. 위대한 진보가 바빌로니아 천문학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포괄적 시야에서 전 우주를 포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상징적 대수를 발견했다. 바빌로니아 천문학은 우주에 대한 신화적 해석임에도,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공간 테두리에 제한되지 않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케플러가 나타내고서야 천문학이 점성학을 대체하고, 기하학적 공간이 신비적 공간의 자리를 차지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보편학>에 대한 개념과 이상에서 출발했다. 그의 이상은 해석 기하학에 기초를 둔다. 모든 공간과 관계를 수의 언어로 옮길 수 있다는 시도다. 공간 문제에서 시간 문제로 넘어갈 때도 동일한 진보가 발견된다. 칸트, "공간은 <외적 경험>의 형식이요, 시간은 <내적 경험>의 형식이다." 물리적 세계를 체계화하는 시도는 시간 문제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기적 생명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단순한 위치 선정>의 편견이라 한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한다. 유기체는 단일한 순간에 정착하지 않으며, 시간의 세 양식인 과거 현재 미래는 나눌 수 없는 전체다.

19세기 생리학자 헤링은 "기억이 모든 유기체의 일반 기능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극이 가해지면 유기체에는 생리적 자극이 남는다. 이 연쇄에 의해 반작용이 결정된다. 그렇

지만 인간의 기억은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개개 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계열적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기억 재생은 고등 생물군에도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관념을 구성하는 과정들의 사실이 아니라 과정들의 형태다. 과거 경험에서 소여 사실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을 회상하여 재수습한다. 베르그송은 «물질과 기억»에서 “기억은 깊고 복잡한 현상으로 '대화'와 집약을 의미한다”고 했다. 과거 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상호 침투하는 것, 이것은 '생철학'의 주춧돌이다.

우리는 논점을 인간 문화의 현상학으로 한정한다. 기억은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상상이 필요하다. 괴테는 «시와 진실»에서 공상, 허구 요소를 배제하려 하지만, 그가 추구한 진실은 흠어진 사실에 시적인 형태, 즉 상징적 형태를 부여함으로써만 발견될 수 있었다. 시는 한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생활에 판정을 내리는 형식들 중 하나이며, 이때 판정은 재해석을 뜻하며 다른 예술적 표현에서도 가능하다. 자서전의 위대한 예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 언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미래'다. 우리는 여러 회상이나 현대 경험 속에서도 살지만, 여러 회의와 공포, 장래에 관한 불안, 희망 속에서도 산다. 미래에 얽매어 사는 것은 인간성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동물에게도 이런 것이 나타나지만 미래 의식은 인간에게 독특한 의미 변화를 부여한다. 미래는 한 심상에 그치지 않고 한 <이상>이 된다. 한갓 기대에 그치지 않고 생활에서 '명령'이 된다. 이 명령은 실제 요구와 경험 생활을 넘어선다. 이것이 '상징적 미래'요, 종교적 의미에서 '예언적 미래'다.

* 사실과 이상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지성의 근본 구조를 밝히고, 이 구조를 다른 모든 인식 양식과 구별해낼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는데, 인간 지식의 성격은 오성이 사물의 현실성과 가능성 사이에 날카로운 구별을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존재의 연쇄에서 인간 위치를 결정짓는 것도 이러한 성격이다. <현실>과 <가능> 사이의 차이는 인간 이하 존재에도 없고 인간 이상 존재에도 없다. 하느님의 지성이 <원형 지성>이라면 인간의 지성은 <파생적 지성>으로 오직 인간에게만 가능의 문제가 생긴다. 현실과 가능 사이의 차이는 형이상학적(존재론적, 사물 자체)인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사물에 대한)인 것이다.

칸트는 신적 지성을 적극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인간 지성의 한계를 밝히려고 <직관적 오성> 개념을 사용했다. 인간 지성은 <사변적 오성>으로서 이질적 두 요소인 표상과 개념에 의지한다. 우리는 표상 없이 생각할 수 없으며, 개념 없이 직관할 수 없다.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러한 이원론이 가능과 현실 사이를 구별짓는다. 나는 인간 지성을 <표상을 필요로 하는> 지성 대신 상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싶다. 상징은 현실적 실존은 없으나 <의미>를 지닌다. 문화 진보에 따라 사물(현실)과 상징(가능)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상징적 사고의 기능이 방해되었거나 불명료하게 된 조건에서는 현실과 가능 사이의 차이 역시 불확실하게 된다.

전체 18페이지 중 5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

인간이란 무엇인가 - 에른스트 캣시러 요약

저작시기 : 2016-07

등록시기 : 2016-09-27

자료형태 : hwp, pdf

분 류 : 인문/어학

출 처 :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16805110/>

--- 주의 사항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